

■ 특집논문 1

제중원의학교의 성장과 선교의학

박 윤 재

연세대 의사학과

1. 머리말

1884년 최초의 미 선교사가 내한할 당시 조선은 선교부가 볼 때 ‘위험한 개척지’였을 것이다. 몇 년 전까지도 지방에서는 이교도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졌고, 조선정부가 기독교에 대해 가지는 공식적인 반감의 정도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는 선교부에게 교육과 함께 직접적인 복음 전도를 준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부국강병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조선정부 역시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서양식 의료나 교육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북장로회나 감리회 모두 의료선교사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견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갑신정변이라는 정치적 격변을 거치면서 1885년 설립된 제중원(濟衆院)은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획득한 최초의 합법적인 활동공간이었다. 제중원 의사 혹은 교사는 정부 관리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일반 외국인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선교부의 진료권과 조선 정부의 운영권이 이중적으로 결합된 상황을 불편해했다. ‘정부 병원’이라는 형식으로 인해 복음 전도에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조선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희석화되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서히 제중원을 자신들의 내한 목적인 기독교 전파가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 글은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복음 전도를 실천하기 위해 제중원, 특히 제중원의학교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갔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중원의학교의 변화는 선교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과정은 선교부의 의지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에 가졌던 정부병원이라는 성격 때문에 제중원은 조선정부의 선교에 대한 입장 변화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즉, 제중원의 변화는 조선정부를 중심으로 한 한국근대사의 변동과 연동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초창기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고찰하는 작업인 동시에 한국근대사를 의료라는 특

정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의료선교사의 내한과 제중원의학교의 설립

1882년 조선과 미국 사이에 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미 선교부에게 조선은 복음을 전도할 새로운 개척지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선교부는 조선 진출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조선은 ‘문명’의 편리함과 거리가 먼 불편한 땅이었고, 무엇보다도 천주교도에 대한 처형이 이루어졌던 박해의 땅이었기 때문이다.¹⁾ 따라서 선교부의 접근방식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직접적인 복음 전도보다는 의료나 교육을 통한 간접적인 선교방식이 채택되어야 할 조건이었다. 북장로회에서 조선에 파견할 첫 선교사로 의사인 헤론(John W. Heron)을 선택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조선에 온 첫 선교사는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알렌(Horace N. Allen)이었다. 선교사 신분을 숨기기 위해 미 공사관 부속 의사로 임명되어 주로 거류 외국인을 치료하던 알렌이 본격적인 의료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는 1884년 갑신정변을 통해서 제공되었다. 알렌은 개화파에 의해 큰 부상을 입은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閔泳翊)을 치료, 완쾌시킴으로써 서양의학의 효용성을 입증하였다.²⁾

서양의학에 대한 조선정부의 호감을 확인한 알렌은 미 공사관을 통해 병원설립안을 제출하였다. 자신에게 우호적으로 조성된 정치적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 제안에 부연된 다음 설명은 갑신정변이 병원 설립에 준 긍정적인 영향을 짐작하게 한다. “알렌의 인품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최근 그가 서울에서 보여준 성공적인 시술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었으므로 더 부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³⁾ 특히 그가 쿠데타 과정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는 모습은 국가적 과제 중 하나로 강병(强兵)을 추구하던 조선의 지배층들에게 인상 깊게 다가갔을 것이다.

알렌은 제안서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건물과 병원 운영에 소요될 비용을 조선정부에서 부담한다면 자신은 아무런 보수 없이 “조선 국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선정부는 큰 재정적 부담 없이 서양의학이 시술되는 병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제안이었다. 알렌의 진료 소문을 들은 조선인들 중 재력이 있는 환자들은 알렌의 집 근처에 기숙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적절한 시

1)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183쪽.

2) 연세의료원 120년사 편찬위원회, 『인술, 봉사 그리고 개척과 도전의 120년』(연세의료원, 2005), 22-23쪽.

3) 『美原案』 규장각 18046-1(여기서는 『延世醫史學』 2-4, 1998, 506-507쪽에 실린 번역문을 이용하였음).

설의 부족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는 자신의 경험도 첨부하였다.⁴⁾ 병원이 설립될 경우 백성들이 빈부에 관계없이 폭넓게 자신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표시한 것이었다.

알렌은 전제 국가인 조선에서 국왕이 가지고 있었던 위상이나 권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는 병원이 설립된다면 국왕의 권위가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제안을 수락하신다면, 그 기관은 왕립병원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의심할 여지없이 백성들은 폐하에게 더욱 친근감을 느낄 것”임에 틀림없다고 단언하였다.⁵⁾ 새로운 서양식 병원이 백성들의 충성도를 높여줄 것이라는 제안은 개항으로 인해 생긴 새로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통치권력을 강화해야 했던 국왕 고종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왕립병원’으로 제중원이 설립된다면, 그 설립은 국왕의 시혜적인 구료사업이 재개됨을 의미하였다. 1882년 대민 구료기관이었던 혜민서(惠民署), 활인서(活人署)가 폐지되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료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공간에서 시술되는 의료의 내용이 그동안 조선이 향유하지 못했던 서양의학이었다는 점에서 제중원은 국왕의 위민(爲民)정신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부활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나아가 알렌은 “이곳은 젊은이들에게 서양의 의학과 보건학을 가르치는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⁶⁾ 제중원이 서양의학이 시술되는 공간을 넘어 그 교육이 진행되는 장소로 성장할 수 있음을 예시한 것이었다. 알렌은 설립안에서 자신 외에도 “의사를 하나 더 불러”올 수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그 문구를 첨가한 이유는 “그들이 대학을 시작할 수 있다고 암시”함으로써 병원 설립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 목적에 있었다.⁷⁾

서양의학의 실용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실질적인 수용을 위해 의학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조선인들도 동의하고 있었다. 알렌이 입국하자마자 만난 조선의 관리들은 “일본과 같은 의과대학을 시작해주기를 바라고 있었고,”⁸⁾ 정부 기관지 성격의 언론에는 서양의학 수용을 위해 의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소개되고 있었다.⁹⁾ 실질적인 서양의학의 수용이 의학교육을 통한 의료인 양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알렌의 제안은 조선정부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알렌은 조심스러웠다. 자신의 내한 목적이 드러날 경우 획득 가능성이 높은 합법적인 활동공간을 잃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4) 위와 같음.

5) 위와 같음.

6) 위와 같음.

7) 김인수 옮김, 『알렌 의사의 선교·외교편지』(장로회신학대학교 부설 한국교회사연구원, 2007), 45쪽(이하 『알렌 의사의 선교·외교편지』로 줄임).

8) 『알렌 의사의 선교·외교편지』, 26쪽.

9) 『各海口宜設西醫學堂論』, 『漢城旬報』(1884. 3. 27).

자 했던 외국인들 중 일부는 제중원이 선교기관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임을 지적하면서 설립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제중원이 “‘분쟁의 온상’이요 ‘개종책략’의 본거지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병원건설안에 부정적인 발언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 발언들은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간직하고 있던 조선정부에게 제중원 설립을 재고하게 하는 결과를 낼 수 있었다.¹⁰⁾

따라서 알렌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우리의 생활비는 미국에 있는 자선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것”이며, 그 단체는 청나라 “북경, 천진, 상해, 광둥과 다른 중국 도시들의 병원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¹¹⁾ 자신을 파견한 단체가 개항 이후에도 조선에 여전히 강력한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청나라와도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조선정부의 경계심을 풀어주고자 했던 시도였다.¹²⁾ 그 시도는 성과를 거두었다. 알렌에 따르면, “왕과 백성은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중원을 “장로교 선교단체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게” 되었다.¹³⁾

제중원 개원 1주년에 즈음하여 알렌은 제중원의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였다. 병원설립안에서 제안한 의학교육을 시작하고자 한 것이었다. 국왕인 고종은 제중원 설립을 후원하였듯이 의학교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하였다. 화학, 물리, 해부 등에 필요한 기구 구입비도 지급되었다.¹⁴⁾ 조선정부는 재학생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였고, 졸업생에 대한 신분적 보장을 약속하였다.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전임으로 공부해야” 했고, 졸업한 후에는 “일반 의사(공무원) 자격”을 부여받을 예정이었다.¹⁵⁾

1886년 3월 제중원의학교는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된 16명의 학생을 신입생으로 하여 개교하였다. 졸업생들에 대한 배려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져 그들은 졸업 후 주사(主事)의 직책을 가진 정부 관리로, “한국 해군의 첫 군함이 취역”하게 되면 그 배의 군의관으로 등용될 예정이었다.¹⁶⁾ 즉, 제중원의학교에서는 단순히 일반 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사가 아닌

10) H. N. Allen, 김원모 완역, 『구한말 격동기 비사 알렌의 일기』(단국대학교 출판부, 1991), 75쪽.

11) 『美原案』 규장각 18046-1(여기서는 『延世醫史學』 2-4, 1998, 506-507쪽에 실린 번역문을 이용하였음).

12) 알렌은 선교목적이 제중원의 설립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는 자신의 동료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경솔하게 자신의 선교 의도를 밝히는 바람에 병원이 설립되기도 전에 백지화될 뻔 했다고 선교부에 보고했다.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193쪽; 하지만 국왕인 고종은 알렌이 선교사였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제중원 설립에 반대하던 외국 외교관들이 “만일 기독교를 믿는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아무도 치료받지 못할 것”이라는 보고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렌 역시 고종이 자신이 선교사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H. N. Allen, “Medical Work in Korea”, *The Foreign Missionary* 44, 1885, p.74, p.76.

13) 『알렌 의사의 선교·외교편지』, 58쪽.

14) 박형우, 『제중원』(몸과마음, 2002), 134쪽.

15) 『알렌 의사의 선교·외교편지』, 134쪽.

16) *First Annual Report of the Korean Governmental Hospital*(Yokohama: R. Meiklejohn & Co., 1886),

관의(官醫), 군의(軍醫)를 육성할 예정이었다. 제중원의학교를 부설함으로써 제중원은 단순한 구료기관을 넘어 새로운 의학체계의 운영인력인 개혁실무관료를 육성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¹⁷⁾

3. 제중원의학교와 복음 전도

제중원 그리고 이어 설립된 제중원의학교는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내한한 선교사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었다.¹⁸⁾ 하지만 선교사들은 제중원이 그 정도의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궁극적 목표인 전도가 가능한 공간으로 변모되어야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닌 예수, 즉 “위대한 의사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있었고, 조선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진실한 구세주를 전파 하길 갈망”하고 있었다.¹⁹⁾

제중원 설립을 주도한 알렌 역시 제중원에서 직접 선교가 가능하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 적어도 명시적으로 “병원에서 선교사역이 수행되지 못한다는 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선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준비 단계가 필요할 뿐이었다.²⁰⁾ 기독교 전파에 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인물은 헤론이었다. 그는 제중원 의학교에서 의학 외에도 기독교를 가르치겠다는 의욕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었다.²¹⁾ “완전히 개종시키는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보다 그들이 안전하게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던 알렌과는 다른 태도였다.²²⁾

조선정부의 선교에 대한 불허방침도 확고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선교사들이 조선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침범할 경우에만 아직 선교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음을 환기시킬 뿐이었다.²³⁾ 하지만 제중원의 경우는 특수했다. 조선정부는

『延世醫史學』 3-1, (1999), 13쪽.

17) 박윤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혜안, 2005), 45-47쪽.

18) 1889년 조선정부 기록에 목사인 언더우드가 제중원 교사로 표시된 것이 그 예이다. 박형우, 『제중원』(몸과마음, 2002), 142쪽.

19) 김인수 옮김, 『헤론 의사의 선교편지』(장로회신학대학교 부설 한국교회사연구원, 2007), 13쪽(이하 『헤론 의사의 선교편지』로 줄임).

20) 『헤론 의사의 선교편지』, 71쪽.

21) 『헤론 의사의 선교편지』, 34-35쪽.

22) 『알렌 의사의 선교·외교편지』, 358쪽.

23) 천주교에서 명동성당을 조선 국왕들의 신위를 모신 종묘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건축하자, 외무아문은 “조선에 사는 미국인 교사들이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조선의 법과 조약에 위배되므로 막아달라는 공문서”를 외국 공사관에 발송하였다. 『헤론 의사의 선교편지』

제중원이 “정부 소유”라는 이유를 들어 그곳에서 직접적인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었다.²⁴⁾

따라서 직접적인 전도를 목적으로 내한한 의료선교사에게 제중원은 실망스러운 곳일 수 밖에 없었다. 제중원에 잠시 근무했던 감리회 소속의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이 제중원을 사임한 표면적인 이유도 제중원이 비선교기관이라는 점에 있었다. 그는 “병원사업이 순수한 복음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 본부에서도 자기가 이러한 병원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⁵⁾ 감리회뿐 아니라 북장로회 자체 내에서도 ‘이교도’인 조선정부의 지원 아래 병원이나 학교 경영을 해나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²⁶⁾

알렌보다 직접 선교에 보다 적극적이었던 헤론은 1887년 현재 제중원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비판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직접적인 선교를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종교의 자유가 허용될 때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진단하였다.²⁷⁾ 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병원으로서 제중원이 가지는 한계는 명확해 보였다.

1888년 제중원 부녀과 진료를 담당하게 된 호튼(Lillias S. Horton)도 실망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에서 “병원 일과 관련하여 (아주 간접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방법 외에는) 종교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매우 실망”했다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였다.²⁸⁾ 그 실망은 “기독교 사역과는 무관한 의료 사업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며 제중원 사임을 요청할 정도로 깊었다.²⁹⁾

알렌에 이어 제중원의 운영을 담당하던 헤론은 1889년 즈음에 이르면 제중원보다는 북장로회에서 독자적으로 건립할 병원에 더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독립적인 병원이 설립된다면 그 병원에서 환자들을 더 잘 보살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도도 더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³⁰⁾ 제중원을 선교기관으로 변모시키기 보다는 별도의 선교기관을 설립하는 편이 복음 전도를 위해 더 효율적이라라는 예상을 헤론은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중원의학교가 선교에 적당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나아가 적극적인 선교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알렌이 외교관으로 미국에 간 이후 제중원의학교를 포함한 제중원의 운영은 점차 약화되어 나갔다. 졸업생들의 활동상황은 1880년대 후반 제

지』, 110쪽.

24) 『헤론 의사의 선교편지』, 29쪽.

25) H. N. Allen, 김원모 완역, 『구한말 격동기 비사 알렌의 일기』(단국대학교 출판부, 1991), 90쪽.

26) 해링턴 지음, 이광린 역, 『開化期の 韓美關係』(一潮閣, 1973), 82쪽.

27) 『헤론 의사의 선교편지』, 94-95쪽.

28) 이만열·옥성득 편역, 『선교본부에 보낸 서신(1888)』, 『언더우드 자료집』 I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106쪽(이하 『언더우드 자료집』 I 로 줄임).

29) 『언더우드 자료집』 I, 193쪽.

30) 『헤론 의사의 선교편지』, 148쪽.

중원의학교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현재 졸업생 중 진로를 알 수 있는 2명은 각각 군인, 주사로 활동하였다. 이런 결과가 “결코 나쁜 진로는 아니”였을지 모르지만,³¹⁾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의료분야에서 활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제중원의학교에서 시행된 교육이 그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제중원의학교는 비록 헤론이 원하는 정도는 아니었을지라도 점차 선교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격이 변해가고 있었다. 1889년 제중원의학교에서 발생한 한 사건은 제중원이 일종의 선교기관으로 변모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사건은 전도와 관련하여 일어났다. 의학교의 한 학생이 기독교를 전파하려하자 동료 중 몇 명이 기독교 신자와는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제중원의 관리자인 외부 협판에게 항의를 하였다. 이때 협판은 “너희 교사가 선교사이다. 만일 그와 공부하지 못하겠거든, 떠나면 된다”라고 대답하였다.³²⁾ 제중원을 감독하던 조선인 관리가 기독교의 전파를 용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중원의학교 교육에 초창기부터 참여했던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가 평가하기에도 전도의 관점에서 보아 학교 운영이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제중원은 지식인 상류층 청년들이 선교사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고,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의 친구들” 중 일부가 그 학교 학생이나 직원 출신이었기 때문이다.³³⁾ 비록 직접 전도를 목적으로 삼은 의료선교사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제중원은 점차 국왕의 시혜가 구현되는 조선정부의 병원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부의 병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다만 아직까지 조선정부와 선교부 어느 쪽도 선교와 관련하여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4. 제중원의 선교부 이관과 의학교육 재개

제중원에서 조선정부와 선교부의 불안정한 ‘동거’는 1890년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였다. 이 해 제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헤론이 이질로 인해 사망하게 되자, 조선에 거주하던 북장로회 선교사들은 제중원 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선교회가 제중원을 선교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순수 정부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은 제중원을 선교부에서 인수하자는 것이었다. 그들은 “우리 가운데 대다수는 만일 정부가 동의하면 선교회가 병원을 인수받아 선교 병원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31)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한울, 1997), 102-104쪽.

32) 『언더우드 자료집』 I, 163쪽.

33) 이만열·옥성득 편역, 『선교본부에 보낸 서신(1899)』, 『언더우드 자료집』 II(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82쪽(이하 『언더우드 자료집』 II로 줄임).

생각”한다는 의견을 선교본부에 제출하였다.³⁴⁾ 제중원의 운영권을 인수하여 종래 정부병원이라는 조건 때문에 제한을 받았던 선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은 선교 본부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선교 본부는 초대 제중원 원장을 지내다가 외교관으로 전신한 알렌을 다시 병원 책임자로 임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때 알렌은 이미 순수 선교사라고 보기 어려웠다. 외교관과 선교사를 겸직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³⁵⁾ 하지만 설령 겸직이 허용된다 해도 그 기간은 일시적일 수 밖에 없었다. “병원 일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전적으로 그 일에만 매달려야” 했기 때문이다.³⁶⁾

알렌은 북장로회 선교부에 제중원을 담당할 의사의 파견을 요청하는 동시에 제중원을 인수하고자 하는 일본인 의사들, 다른 선교회들의 노력을 좌절시켜나갔다. 다른 외국인들이 제중원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관심과 인수 노력은 구체적이었다. 영국 성공회의 경우 병원 관리자를 고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관할 부서인 외무아문의 인가를 획득하려 하였다.³⁷⁾ 조선정부는 제중원의 이관을 고려하면서 북장로회에 제중원 운영 여부를 문의하기까지 하였다.³⁸⁾ 북장로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 제중원은 다른 선교회의 전도기관으로 변모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알렌이 판단하기에 제중원은 쉽게 양도할 대상이 아니었다. 제중원은 최초의 선교사로서 자신이 조선에서 한 활동을 상징하는 기관이었다. 제중원은 알렌 개인에게만 중요한 기관은 아니었다. “그 병원은 이곳에 있는 미국 최고의 기관”이었다.³⁹⁾ 제중원의 소멸은, 적어도 알렌에게는, 선교사들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조선 활동이 무화되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알렌은 미 공사관과 협조 아래 제중원의 운영권 방어에 나섰고, 그가 한 역할은 작지 않았다. “알렌만 없었다면 역시 그들이 병원을 차지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⁴⁰⁾

이 과정에서 선교부가 제중원 운영을 위해 파견한 의사가 빈튼(Charles C. Vinton)이었다. 새로운 책임자인 빈튼이 해야 할 일은 적지 않았다. 제중원에 대한 선교부나 조선정부의 관심이 약화되면서 제중원의 운영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진료와 무관한 관리들이 제중원을 차지하고 운영비의 태반을 횡령하고 있었다.⁴¹⁾ 관리들은 횡령을 넘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착취함으로써 제중원을 “굉장히 더럽고 부도덕한 장소로 전락”시키고 있었다. 그 결과 서양의학의 명성 역시 “거의 바닥에 떨어”져버렸다.⁴²⁾ 설립 직후 1

34) 『언더우드 자료집』 I, 227쪽; 제중원 인수에 대해 장로회 선교사들의 의견이 처음부터 일치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만일 제중원에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없다면 “병원사역을 중단”할 결정까지 내리고 있었다. 『알렌 의사의 선교·외교편지』, 394쪽.

35) 『언더우드 자료집』 I, 232-233쪽.

36) 『알렌 의사의 선교·외교편지』, 358쪽.

37) 『알렌 의사의 선교·외교편지』, 373쪽.

38) 『알렌 의사의 선교·외교편지』, 397쪽.

39) 『알렌 의사의 선교·외교편지』, 423쪽.

40) 해링톤 지음, 이광린 역, 『開化期の 韓美關係』(一潮閣, 1973), 99-100쪽.

41) Oliver R. Avison, 『舊韓末秘錄』 하, (대구대학교 출판부, 1984), 173쪽.

년에 1만여 명을 진료하던 초창기 제중원의 활력은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빈튼은 원내에 교회를 설립하고자 했던 자신의 노력이 좌절되자 자신의 집에서 별도로 환자를 진료하는 등 제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⁴³⁾ 그는 “주어진 의무를 그럭저럭 완수하는” 정도였으며, “하는 일에 진정한 관심은 없는 듯” 했다. 종래 제중원을 횡령의 대상으로 활용하던 정부 관리들이 “병원 일에 무관심한 의사”를 맞이하면서 “사태가 설상가상으로 악화되면서 병원은 썰물 빠지듯이 진료소 수준으로 영락”해버렸다.⁴⁴⁾

쇠락해진 제중원을 부활시킨 선교사는 1893년 파견된 에비슨(Oliver R. Avison)이었다. 그는 제중원에서 진료를 개시함과 동시에 운영의 상당 부분을 선교부로 이관시키고자 하였다. 역시 전도문제 때문이었다. 당시 제중원은 종교적 규제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상태였다. 알렌에 따르면, “우리가 시도하기를 원하면 진료소 대기 환자들에게 매일 전도 집회를 열어도 정부측에서 반대하지 않을 것”은 분명했다.⁴⁵⁾

제중원을 담당하게 된 에비슨은 만일 의사 파견을 넘어 재정 운영까지 선교부에서 담당한다면 제중원을 “진정 효과적인 선교기관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⁴⁶⁾ 궁핍한 재정은 조선정부가 제중원 운영과 관련하여 겪고 있던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미국 공사가 제중원의 운영권을 이관할 경우 “귀 정부가 겪고 있는 자금난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문서에 적시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⁴⁷⁾ 당시 조선정부는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에비슨의 내한 이후 제중원 재건축이 국왕인 고종에 의해 내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역시 부족한 재정에 있었다. “정부의 상황이 극히 어려워서 재정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⁴⁸⁾

1894년 에비슨은 제중원의 운영권을 자신에게, 즉 북장로회에게 이관시켜달라고 조선정부에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제안의 내용은 제중원이 완전히 조선정부의 관할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중원의 정당한 운영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정부가 파견한 관리, 즉 주사 몇 명이 “병원에 거주하면서 귀 정부를 대표”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부로서는 “맷가 없이 1급 병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⁴⁹⁾

42) 『알렌 의사의 선교·외교편지』, 351쪽.

43) 박형우, 『제중원』(몸과마음, 2002), 208-210쪽.

44) 『언더우드 자료집』Ⅱ, 27쪽.

45) 『언더우드 자료집』Ⅱ, 34쪽.

46) “Graduate Exercises”, Korea Mission Field 4-8, (1908), p.123. 그러나 제중원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지에 대해 조선에 거주하고 있던 선교사들은 부정적이었다. 에비슨은 “왜 모두 실패하리라고 보는 일을 자기에게 맡겼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정도였다. 『언더우드 자료집』Ⅱ, 29쪽.

47) 『美案』 규장각 18046-1. 여기서는 『延世醫史學』 2-1, (1998), 123-124쪽에 실린 번역문을 이용하였음.

48) 『알렌 의사의 선교·외교편지』, 433쪽.

그러나 조선정부의 결정은 예비슨에게는 기대 이상의 것이었다. 정부는 주사의 파견도 거부함으로써 제증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포기해버렸다. “우리 정부의 관리와 고용인 등을 다시 파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이었다. 조선정부는 제증원의 “모든 사무는 그가 완전히 관할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⁵⁰⁾ 이로써 제증원의 운영권은 북장로회 선교부로 이관되었다. 제증원이 선교병원으로 재탄생한 것이었다.

제증원의 운영권을 이관 받은 예비슨은 진료와 함께 그동안 중단되었던 의학교육을 재개하였다. 처음 예비슨의 구상은 자신이 근무했던 캐나다의 토론토대학과 같은 의학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안경사까지 육성하는 기관의 설립이었다. 당시 조선에 초중등교육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입학생에게는 기초 과정도 교수할 예정이었다.⁵¹⁾ 선교부에서 세운 중등학교가 예비학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생물, 물리, 화학, 수학, 일본어, 영어 등 기초적인 과목을 배재학당과 같은 곳에서 교육한다면, 제증원의학교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⁵²⁾

나아가 그의 구상은 일반적인 의료인력의 육성을 넘어 기독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의사의 양성으로 이어졌다. 제증원이 선교기관으로 변모된 이상 의학교육을 통한 기독교의 양성은 당연한 과정이었다. 더욱이 예비슨이 생각하기에 의사는 향후 조선사회를 지도할 수 있는 주요 계층이었다. 만일 기독교 의학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의사를 배출한다면 “이 영향력 있는 집단에 기독교 정신을 심을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⁵³⁾ 1886년 개교한 제증원의학교는 예비슨 시기에 이르러 선교부에서 의료선교사들을 파견한 본래의 목적, 즉 복음전도의 기지로서 역할을 본격적으로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5. 맺음말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증원은 서양의료가 시술되는 새로운 정부병원을 가지고자 했던 조선정부와, 기독교 전파가 금지된 조선에서 합법적인 활동공간을 가지고자 했던 북장로회의 이해가 일치되어 탄생한 기관이었다. 하지만 1880년대 제증원은 조선정부에게도,

49) 『美案』 규장각 18046-1. 여기서는 『延世醫史學』 2-1, (1998), 123-124쪽에 실린 번역문을 이용하였음.

50) 『美案』 규장각 18047. 여기서는 『延世醫史學』 2-1, (1998), 137쪽에 실린 번역문을 이용하였음.

51) O. R. Avison, “Some High Spots in Medical Mission Work in Korea”, *Korea Mission Field* 35-7, (1939), p.146.

52) A. F. D., “Severance College : Doing things Together”, *Korea Mission Field* 9-11, (1913), pp.296-297.

53) O. R. Avison, *Annual Report of the Imperial Korean Hospital*, Methodist Publishing, (1901). 여기서는 『延世醫史學』 4-3, (2000)의 번역문을 이용하였음.

선교부에게도 만족스러운 기관이 되지 못했다. 조선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의학교 운영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의학체계를 운영할 실무인력의 양성이라는 설립 초기의 목표가 실현되지 못했고, 선교부의 입장에서 볼 때 제중원은 여전히 합법적인 기독교 전파가 불가능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제중원에서 선교부와 조선정부의 불안정한 ‘동거’가 해소되는 계기는 1894년에 찾아왔다. 새롭게 제중원 원장으로 파견된 에비슨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던 조선정부에 운영권의 이관을 교섭하였고, 조선정부는 선교부에 제중원을 완전히 이관하였다. 정부병원이라는 형식 때문에 제중원에서 전도에 일정한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선교사들에게 이관은 제중원의 선교병원으로 재탄생을 의미하였다. 제중원 이관 후 에비슨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의학교육이었다. 조선인 의사들은 향후 조선에 기독교를 전파하고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새로운 계층이었기 때문이다.

1886년 설립된 제중원의학교는 1913년 기독교 각 선교회가 연합으로 운영하는 연합의학교로 성장해나갔다. 이 과정은 1884년 선교부가 알렌을 파견하면서 이루고자 했던 기독교 복음의 전파라는 목표가 현실화되는 과정이었고, 그 목표가 단순한 복음 전도에서 나아가 기독교 의사 배출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이었다.